

##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스타일에 관한 연구

이지은 · 곽태기\*<sup>†</sup>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박사과정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sup>†</sup>

### Study on gender-neutral style in modern fashion

Ji-Eun Lee · Tai-Gi Kwak\*<sup>†</sup>

Ph. D.,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sup>†</sup>

(2020. 4. 14 접수; 2020. 5. 19 수정; 2020. 8. 24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gender-neutral phenomenon, to grasp the flow of design, and to seek the future direction of modern fashion design. As for th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this study was performed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In terms of visual data, website photos were collected from the collection of S/S in 2016 to F/W in 2020. To assess the properties of the gender-neutral, analysis was implemented on the results after arranging the factors for gender neutrality and the characteristics suggested in the related papers. The fashion-related expert group analyzed the properties of the gender-neutral style from 1,031 pictures, where the gender-neutral style of fashion design collections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der-neutral were analyzed and divided into the extended body-positive performance style, the mashup style- respecting the conflicting culture, the street style of coexisting genders, and the fluid style of changing directions. In this study, the attributes were derived as acceptability, playfulness, and sustainability.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lay a fundamental role in the creative fashion design development and unfolding of the fashion industry and fashion designers.

*Key Words:* gender-neutral(젠더뉴트럴), genderless(젠더리스), life style(라이프스타일)

## I. 서론

최근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 공유 및 다양한 문화와 양식이 공존하는 다원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다원주의는 특정한 사조나 양식보다는 다양한 양식과 사조의 융합으로 다수의 성의 경계를 초월하여 개인의 독자성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소비하는 미닝 아웃 트렌드

<sup>†</sup>Corresponding author; Tai-Gi Kwak

Tel. +82-2-3408-3220

E-mail : kwaktg@sejong.ac.kr

(meaning out trend)로 확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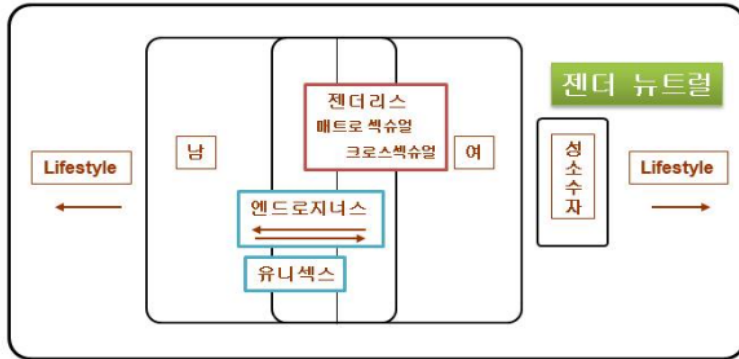
패션은 정치, 사회, 경제적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성격, 취향, 미적 기준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성 평등의 새로운 시각인 젠더 뉴트럴은 패션 트렌드의 한 요소로 인식되며 패션 유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패션 분야에서는 다수의 패션 디자이너가 다양한 문화와 성의 관념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생각을 패션을 통해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은 사회적인 흐름의 현상이 패션으로 전이되어 유행적으로 생성되고, 전달되는 유통의 통화체제로 볼 수 있다.

2018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중 트렌드 분석에서 보면 대한민국 트렌드 중 뉴스 부분에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이 올랐다. 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위드 유 운동(With You movement)', '탈코르셋 운동' 등이 언론매체에 실시간으로 오르내렸으며 이는 자신의 주관, 신념을 드러내는 행위인 미닝 아웃(meaning out)의 본질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남녀 대결 구도로 페미니즘을 혐오적인 분위기를 양산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며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법률적으로 서로 피해 없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차별 없이 지낸다는 '양성평등', '성 중립'은 젠더 문제를 넘어 패션, 소비 등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점점 확산하고 있다. 성 중립 키워드로 젠더 뉴트럴 관련어를 트렌드 분석한 자료(구글 검색, 2019. 1)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검색하여 본 결과, 젠더 뉴트럴 랭귀지(Gender-neutral language) 2004년 1월 26포인트에서 2019년 1월 92포인트로 보였으며, 젠더 뉴트럴(gender-neutral)은 2004년 1월 0포인트로 나타났으나, 2019년 1월 62포인트로 점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도 젠더와 관련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거나 양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젠더와 관련된 패션 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성의 정체성과 젠더의 개념, 젠더리스의 디자인 분석, 디자인 특성으로 연구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동향은 성 정체성과 이미지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성 소수자를 포함하지 않은 성의 고정성을 연구한 것이며 최근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성 소수자를 포함한 '우리' 안에서 '나'의 정체성인 성 중립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아 가는 젠더 뉴트럴 현상을 이해하고, 현대 패션의 젠더 뉴트럴적 디자인의 흐름을 파악하여, 앞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의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성 중립 사고의 확장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하고 진보된 소비 가치문화를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연구의 밑거름으로써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첫째, 젠더 뉴트럴의 개념과 전개에 대해 문헌 고찰을 하였고 젠더 뉴트럴 트렌드의 확산 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현대 패션에 젠더 뉴트럴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2016년 S/S부터 2020년 F/W까지를 연구 범위로 선정하여 젠더 뉴트럴 패션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에 활용된 자료 선정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문헌 고찰의 미디어 기사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젠더 뉴트럴'과 '성 중립 패션' 키워드로 한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는 기사에서 3번 이상 언급된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란제리 의류와 룩 북과 컬렉션을 보여주기 힘든 스트리트 의류는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패션 디자이너는 구찌(GUCCI), 발렌시아가(Balenciaga), 버버리(Burberry), 베트멍(Vetements), 블라인니스(Blindness),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 제이더블유 앤더슨(JW ANDERSON), 톰 브라운(Thom Browne)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과 젠더 뉴트럴 스타일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젠더 뉴트럴 패션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사례연구는 일차적으로 분석한 8개 브랜드 중 www.vogue.com에서 2,035장의 이미지 시각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분석은 패션 관련 전공 대학원생 중 석사 수료 이상이며 5년 산업체 경력 이상 2명과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3인으로 총 5인의 패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증을 실행하여 젠더 뉴트럴 스타일로 모호하다



〈그림 1〉 젠더 뉴트럴의 개념 및 방향정립

고 판단되는 유형과 비슷한 착장을 제외한 최종 1,490장의 이미지를 분석 대상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II. 젠더 뉴트럴의 이론적 배경

### 1. 젠더 뉴트럴 개념과 전개

젠더 뉴트럴은 옥스퍼드 사전인 OED(Oxford English Dictionary)에 의하면 형용사로 ‘성 중립적인’ 태도나 관점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2006년에 신조어로 등재하였다(OED, 2006.3).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 역할과 성 개념에서 벗어나 더 발전하여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계에서는 ‘남녀 공용’이라는 의미의 유니섹스(unisex)라는 단어 대신 성별의 구별이 없는 ‘젠더리스(genderless)’, 성소수자(LGBT,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 Lesbian, 게이 Gay, 양성애자 Bisexual, 트랜스젠더 Transgender)를 포함한 성 중립적인 ‘젠더 뉴트럴리티(gender neutrality)’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젠더 뉴트럴 관련 기사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젠더리스와 A젠더, 젠더 뉴트럴을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젠더 뉴트럴로 명칭을 제안하고 이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남성성을 지향한 유니섹스와 남성성을 지향하며 남성이 여성성을 내포한 앤드로지너스, 여성

성을 지향한 젠더리스, 성 중립적인 젠더 뉴트럴을 분류하여 젠더 뉴트럴의 개념 및 방향 정립 유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하였던 1960년에서 1980년대 패션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중에 남성성을 지향한 여성의 욕구에 의한 표출한 유니섹스는 1960년대 유행하기 시작하여 남녀 공용인 남·여 구별이 없다는 의미로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앤드로지너스는 남·여의 의복의 특징을 교류하여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 패션을 따라 하는 개념에 국한된다. 이와 반대로 1990년대 와서는 국제적으로 사회적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파생된 젠더(gender)에서 권장하였다. 이는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하나로 통합시켜 휴머니즘(humanism)을 강조한 양성성을 표현하였다. 특히 남성 해방을 희망하는 남성들이 남성의 패션에 여성의 전유물로 여기던 클리치 백과 레깅스, 색조 메이크업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함으로써 자유로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인 젠더리스 경향으로 나타났다. 젠더리스에 포함되는 크로스 섹슈얼과 여성들이 입어도 될 정도의 우아하고 섬세한 디자인의 메트로 섹슈얼이 표출하였다(이연영, 변미연, 이인성, 2016). 최근 패션에서는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해지면서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성소수자까지 포함한 성 구분을 뛰어넘어 성 중립성을 지향하여 제작에서부터 성을 구분하지 않고 신체적 특징과 취향의 차이만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

분류	구분	시기	대표이미지	분류	구분	시기	대표이미지
m a n	젠 더 리 스	1990년~	 〈출처: LOOK(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p.57〉	w o m e n	유 니 섹 스	1960년대 말경	 〈출처: <a href="https://www.fashionseoul.com/100509">https://www.fashionseoul.com/100509</a> 〉
		2000년대 중후반	 〈출처: LOOK(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p.58〉			엔 드 로 지 너 스	1970~ 80년대
		메트로 섹슈얼	1994년~		 〈출처: <a href="https://golbim.tistory.com/63">https://golbim.tistory.com/63</a> 〉	L G B T 포 함	젠 더 뉴 트 럴

〈그림 2〉 젠더 뉴트럴의 시대별 이미지 흐름

거나 아이템을 제안하는 젠더 뉴트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별 변천에 따른 젠더 스타일 이미지는 〈그림 2〉와 같이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대 흐름에 따라 시대정신이 변화하여 젠더의 개념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스타일의 특징을 정리하였다(표 2). 젠더의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 오클리(Ann Oakley)의 저서 ‘Sex, Gender and Society’에서 생물학적 의미의 성(性)인 섹스(sex)와 다른 사회적인 성(性)을 지칭한다(Ann, 1976). 젠더(gender)는 라틴어 ‘genero’에서 ‘낳다’, ‘생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파생되었다(Inge, 1999). 1990년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의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에서 기존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성별

이분법(gender binary)을 비판하며 여성을 개인이 여러 경험을 통해 구성된 복잡한 사회 구성물이라는 주장인 ‘젠더 수행성 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젠더의 범주를 확장하여 발전시켰다(Butler, 2008).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인 구조가 붕괴되고 양성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세계 여성대회 정부 기구(GO) 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수의 국가가 생물학적인 남녀 차별을 나타내는 섹스와 사회적 의미로 젠더를 구분하여 쓰기로 국제적으로 결의하였다(송무 외, 2003). 이후 젠더의 본질이 정체성에서 주체를 미리 전제하지 않는 수행성(performativity)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지영, 2005). 이렇듯 현대에 들어와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일부러 성별

을 지우거나 반대로 반드시 드러내야만 한다는 규범에서도 젠더 중립을 수용하는 젠더 뉴트럴 트렌드의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문화, 예술, 패션에 반영되어 다각화하며 전개되고 있다.

## 2. 젠더 뉴트럴 트렌드의 요인분석

젠더 뉴트럴은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시대 변천에 따라 성 정체성에 따른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와 성의 구분을 없애는 젠더리스나 성의 중립성으로 나타내는 젠더 뉴트럴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정치, 성 평등 등을 넘어 사회 문화 전반과 의식주까지 영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절에서는 현대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현상 확산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젠더 감수성의 변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요인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1)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젠더 뉴트럴 스타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유행과 소비를 이끄는 집단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 구분에 반대하며 기존 세대와 다른 행동 양식과 소비 트렌드로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하였다. 또한 MZ 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준말)는 국가 인종 성별 등에 열려 있으며 자기만의 취향과 가치, 만족을 위해 소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라이프 스타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처한 환경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태도, 추구하는 가치관, 관심, 의견까지 통합된 체계이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와 탄력근무제의 도입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家政兩立, Work-Life Balance)’으로 또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앞 글자를 딴 ‘워라밸’이라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개인의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생활과 공동체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삶의 경향을 의미한다. 스웨덴어로 ‘라곰(Lagom, : 적당한, 충분한, 딱 알맞은, 균형)’이라고 하며, 일본어로 소확행(小確幸: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비슷한 의미로 소박하고 균형 잡힌 생활과 공동체와의 조화를 중시하는 삶의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균형 잡힌 삶을 통해 자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며 개인이 둘러싼 지역 사회, 환경과 조화롭게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은 몇 년 사이 낡은 옥상이나 옥탑방이 탁 트인 야경이 보이는 ‘하늘을 옮겨간 마당’으로 진화하며 루프탑(rooftop)카페 중에 한 곳이며 루프 탑 문화는 다양해지면서 확산되고 있다(한윤조, 2017). 이는 바쁜 일상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볼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와 같고 사진 찍기 할 때 빛의 감도가 자연채광으로 색감 표현이 좋고 밤에는 조명을 배경 삼아 찍을 수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리기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사료되며 공간에 따른 다양한 자아를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라이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여기에서 발전하여 <그림 4>는 ‘문래당 106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인문학, 음악, 미술이라는 취향 공동체로 이와 같이 나이·직업·관계없이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 모여 오로지 취미나 취향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여 살롱 문화가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소비주체로 떠오르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은 개인화된 서비스인 SNS의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사회 윤리적 가치를 수행하는 확장된 자아를 연출하고자 하는 욕구로 표출되고 있으며 소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 취향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목적과 기능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시대별 변천에 따른 젠더 개념의 스타일특징

분류	구분	특징		대표 디자이너
women	유니섹스	시기	1960년대 말경	캘빈 클라인, 루디 케른라이히
		개념	청년 하위문화의 특징인 기존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성의 혼돈을 외향적으로 남녀구분이 없이 표현, 남성성을 지향한 여성의 욕구로 표출됨.	
		형성 원인	기계문명과 산업화의 가속화로 인한 소외감과 허무감에 빠진 사람들이 동성이나 이성간의 경쟁 심리를 버리고 동질성 추구에서 등장	
	엔드로지너스	디자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루엣: H실루엣, 오버사이즈실루엣</li> <li>색상: 카키계열색상, 내추럴 색상</li> <li>소재: 다이마루, 진, 점퍼소재</li> </ul>	이브 생 로랑, 장폴 고티에, 클로드 몬타나
		시기	1970~80년대	
		개념	남성복에 여성복의 기표 사용하거나 여성복에 남성의 권위나 성적 상징의 기표를 사용되었으며 남성성을 지향한 여성의 욕구로 표현	
man	젠더리스	형성 원인	급진적인 페미니즘운동으로 예술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여성의 전문직증가로 새로운 소비집단으로 등장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확대로 증장	비비안웨스트우드, 장폴 고티에
		디자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루엣: 슬림 앤 피트와 벌크 실루엣, H실루엣</li> <li>색상: 그레이시톤, 페일톤, 화려한 색상의 비비드 톤,과 저명도의 짙은 색상으로 상반된 색상으로 성에 따른 상반된 색상으로 표현</li> <li>소재: 니트, 새틴 및 오간자, 퍼, 가죽등 상반된 소재로 나타남</li> </ul>	
		시기	1990년~	
		개념	성의 구별이 없는, 또는 중성적인 뜻을 내포하며 남성 해방을 희망하는 남성들이 그들의 패션에 자유로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표현	
	크로스섹슈얼	형성 원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성 역할에 대한 반발이며 이는 곧 인간 내면 욕구의 표출	돌체앤가바나, 올리우스, 지안프랑코 페레
		디자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루엣: 남성-슬림 앤 피트 여성- 오버사이즈 실루엣</li> <li>색상: 남성- 파스텔계열, 비비드 컬러 여성- 비비드 컬러 및 무채색</li> <li>소재: 남성- 실크, 벨벳, 비치는 소재, 니트 여성- 울, 면, 데님</li> </ul>	
		시기	2000년대 중후반	
		개념	여성성과 남성성이 공존하고 여성적인 취향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예쁜 남성상을 의미하나 패션 이외의 행동, 말투 등은 남성스럽다는 것이 특징	
	메트로섹슈얼	형성 원인	남·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루키즘(외모지상주의)의 영향, 대중매체 등이 주도한 꽃미남 열풍 속에서 등장	돌체앤 가바나, 디올옴므
		디자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루엣: 슬림 앤 피트</li> <li>색상: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의 비비드 컬러, 핑크, 퍼플의 파스텔계열</li> <li>소재: 실크, 벨벳, 비치는 소재, 메탈소재, 니트소재</li> </ul>	
		시기	1994년~	
		개념	외모에 관심이 많고, 자신을 가꾸는 데에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남성들로 남성미 안에 여성적 섹시함이 풍기는 도시적인 느낌을 추구	
LGBT포함	젠더 뉴트럴	형성 원인	남·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루키즘(외모지상주의)현상으로 꽃미남 열풍 속에서 등장	구찌, 발렌시아가, 베트멍,
		디자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루엣: 슬림 앤 피트</li> <li>색상: 비비드 톤, 고명도의 화려한 색상, 화이트나 핑크 색상에 대조배색</li> <li>소재: 신축성 소재, 니트, 쉬폰, 레이스, 실크</li> </ul>	
		시기	2006년~	
		개념	성 구분을 뛰어넘어 성 중립성을 지향하는 것을 뜻함.	
LGBT포함	젠더 뉴트럴	형성 원인	전통적인 성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모호해지고 다양성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가시화되면서 등장	구찌, 발렌시아가, 베트멍,
		디자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루엣: 오버사이즈(oversize silhouette)</li> <li>색상: 비비드색상과 화려한 색상, 무채색 색상,파스텔 색상등이 혼재</li> <li>소재: 면, 실크, 데님, 기능성원단, 폴리에스테르 등 다양한 소재 믹스매치</li> </ul>	



〈그림 3〉 광장코아 루프탑  
팜 'PP11'

(출처: <http://mnews.imaail.com/NewestAll/2017090709440485359>)



〈그림 4〉 문래당 1063

(출처: <https://moonraedang.blog.me/>)



〈그림 5〉 스코틀랜드의 성  
중립화장실 심볼

(출처: <https://www.jungle.co.kr/magazine/200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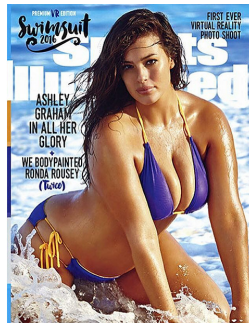
〈그림 6〉 라떼파파

(출처: [www.sbs.co.kr](http://www.sb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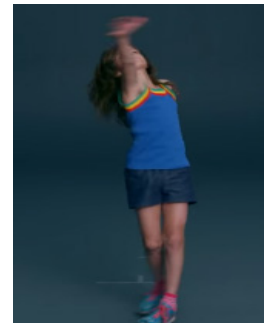
〈그림 7〉 일본의 성 중립 교복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9&aid=0004116511>)



〈그림 8〉 Sport  
illustrated Swimsuit  
Issue의 커버모델

(출처: Sport illustrated Swimsuit Issue)



〈그림 9〉 P&G  
A;ways#Like A Girl

(출처: <https://youtu.be/XJQBjWYDTs>)

2) 젠더 감수성의 변화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성 정체성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정체성들 가운데 젠더 중립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표면적인 성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성 평등 확산을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젠더 이슈를 감지하는 능력인 젠더 감수성이 있다. 이는 성차별과 젠더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범위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나아가 인종, 국적, 성 정체성, 종교 등의 다양한 정체성들이 상호교차하며 차이로 인한 차별에 대한 감수성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그림 5〉는 2017년 미국에 이어 2018년 성 중립 공중화장실 법 개정을 한 스코틀랜드의 학교에 새로 도입된 남녀 공용 화장실 심볼(symbol)이며, 이는 혼성 화장실(Unisex toilet) 혹은 성 중립

화장실(gender-neutral bathroom)로 어떠한 사회적 성별이나 성 정체성일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뜻한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성 중립 화장실 도입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공간에 설치가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 여성 발전 기본법은 '모성(母性) 보호'만을 강조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모성뿐 아니라 부성(父性)권도 함께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엄마뿐 아니라 아빠 직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나 조치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한다(김지연, 2015). 이렇듯 기업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성 공동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그림 6〉은 SBS에서 스페셜 방송한 아빠의 전쟁 중 3부 '잃어버린 아빠의 시간을 찾아서'에서 등장하는 라떼 파파(LattePapa:라테

(Latte)와 아빠(Papa)의 합성어로 한 손에 라테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아빠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북유럽 선진국에서 유래한 말로 인해 부부가 양육을 공유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가정에 필요한 역할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7>은 일본에서 새로 문을 여는 가시와시의 한 중학교가 젠더리스 교복이며, 이 교복은 기존의 초·중·고교 교복은 남학생일 경우 짧은 스탠드 컬러의 긴 상의와 느슨한 바지로 된 디자인을 착용하였으며 여학생은 세일러복 모양으로 통일돼 있다. 그러나 가시와시 중학교의 젠더리스 교복은 '넥타이와 리본', '바지와 스커트' 중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양현주, 2018).

이처럼 Z세대들은 자기다움에 집중하여 어느 성에 속하지 않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개념뿐만 아니라 성별, 체형, 인종, 나이 등을 개의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타났으며 열린 사고와 개방성과 유연함을 지향하며 개인의 취향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3) 대중매체의 영향

과거에 과감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개인이나 사회적 견해가 대중문화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패션과 문화계에서는 다중적 성 정체성을 새롭게 해석하여 영화, 광고, 예능프로그램 등으로 대중문화로 확장해 표현해나가고 있다. 이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활용한 광고의 파급력도 사회를 바꿀 정도로 커지고 있다.

<그림 8>은 2016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Illustrated) 수영복 특집판의 커버 모델로 플러스 모델이 처음 등장한 잡지의 커버 사진이며 애슐리 그레이엄(Ashley Graham)이 모델로 발탁되며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몸 긍정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는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성마른 모델보다는 건강미 넘치고 당당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

아들이는 움직임으로 외모로 판단되던 풍조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식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는 2014년 슈퍼볼 당시에 상영한 P&G 브랜드의 '올웨이즈(Always)가 선보인 "여자에처럼"(#Like A Girl) 광고로 카메라 앞에서 '여자처럼 달려라', '여자처럼 공을 던지고, 싸워보라'할 때 성인남녀와 소년은 두 손을 흔들거나 뒤뚱거리며 팔짝팔짝 뛰며 사회적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린 여자아이들은 같은 주문에도 힘껏 달렸다. 성의 편견이 없는 아이들은 '여자에처럼'이라는 표현을 힘껏 달리라고 이해하였다고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이처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여성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페이버타이징(Femvertising: Feminism+Advertising)이라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일반화된 성에 간혀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보디 포지티브로 표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유동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젠더 뉴트럴 선행연구의 스타일 유형

젠더 뉴트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성의 정체성에 따른 젠더의 개념, 젠더리스의 디자인 분석, 디자인 특성, 성소수자의 디자인 분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성의 정체성 유형을 추출하여 스타일 유형과 특성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였다.

성의 정체성에 따른 젠더의 개념을 박미령(2003), 이연희, 김영인(2005), 정하나(2006), 정혜경(2011)에서 공통으로 전통적 남성성, 메트로 섹슈얼,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콘트라섹슈얼, 전통적 여성성으로 분류하였다. 젠더리스의 디자인 분석에서 양은진, 이인성(2009)는 매니시한 H라인 실루엣에는 색상을 블랙, 화이트, 부드러운 소재 사용, 매니시한 디테일과 여성스러운 장식의 조화로 콘트라섹슈얼로 분석하였다. 김해진(2011), 이진경(2011)은 인체의 곡선을 살려주는



X실루엣, 러플, 프릴, 하늘거리는 페미닌한 소재와 꽃 문양, 화려한 디테일, 악세서리 착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특성으로 이언영 외 2인(2006)은 여성적 이미지의 요소의 일부 또는 남성 패션의 도입을 한 성의 해체성, 신체의 간·직접적 노출의 관능성, 소재와 형태의 이질적 요소의 절충으로 분류하였다. 정민아(2014)는 의미의 복합과 고정관념의 해체의 다원성, 시대적 상호 텍스트와 이분법의 부재의 상호연관성, 신체 구조의 해체와 제3의 성 등장으로 인한 탈 재현성으로 분류하였다. 김지혜(2016)은 이미지 병치, 다양한 톤과 색상 이질적 소재 사용, 전통과 현대적인 의복의 결합,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조화의 절충성, 이질적 요소 도입과 규칙 위반, 왜곡의 유희성, 형태나 구조를 변형하고 창조적 재결성한 과장성, 직접적 노출이나 간접적 노출,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신체 라인 강조로 나타난 관능성, 역사성으로 표현하였고 정수진 외 2인(2018)은 전이, 이탈, 모순, 위기, 혼재로 보였으며 안광숙(2018)은 남성복과 여성복의 스타일을 동시에 표현한 양성성, 형태나 소재, 다양한 디자인 요소와 이질적 요소 도입한 절충성, 신체의 관능적 부위를 강조, 신체라인 강조, 신체를 감싸는 은밀한 관능성, 일상적 규칙의 변화와 형태를 왜곡, 변형한 유희성으로 분류하였다. 성 소수자의 선행연구에서는 정규연(2019)에서는 관습적인 젠더 규범 대응에서 젠더 규범에 순응, 규범과 개성의 타협, 규범에 저항, 규범으로부터 이탈로 파악되었고 각 대응 태도에 따라 개성 추구형, 신체관리형, 관습적 젠더 모방형, 중립적 젠더 이미지 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의 특징 기준을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젠더 뉴트럴 트렌드의 확산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스타일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신체 관리와 기법과 소재의 다양성, 개성 추구는 바디 포지티브 퍼포먼스로 확장된 스타일로 도출하였다. 둘째, 이국적 요소의 절충, 전통과 현대적인 의복의 결합,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조화로 복합 오브제와 재료 사용은 상반된 문화 존중의 메시업 스타일로 도출하였고 셋째, 중립적 젠더 이미지 추구하고 제3의 성 등장은 공존하는 성(性)의 스트리트 스타일로 도출하였다. 넷째,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신체의 관능적 부위나 신체라인 강조, 신체를 감싸는 방향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로 도출하였다.

###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스타일 특성

####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스타일 특징과 특성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젠더 뉴트럴 스타일 유형은 젠더 뉴트럴 개념 및 전개와 젠더 뉴트럴의 확산요인으로 분석된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젠더 감수성의 변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새로운 감성으로 나타나는 패션 스타일인 확장된 바디 포지티브 퍼포먼스 스타일, 상반된 문화의 존중의 메시업 스타일,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젠더 뉴트럴 스타일과 특징에서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확장된 바디 포지티브 퍼포먼스 스타일

현대 패션은 신체와 사이즈 등 다양성을 수용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포괄적인 디자인으로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베트멍 2019 S/S 컬렉션의 <그림 10>의상은 기존의 마른 모델을 개인에서 가족과 타자로 연계된 지속가능성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림 11>은 발렌시아가의 2018년 S/S 컬렉션 의상으로 80, 90년대의 레트로 느낌이 물씬 풍기는 딱딱한 셔츠보다는 더 캐주얼한 느낌의 오픈칼라와 컬러 배색으로 매치한 아동모델들과 함께 등장하여 경쾌한 느낌을 스타일 업 시켜주고 있다. 톰 브라운 2017 S/S MENS WEAR 컬렉션 의상인 <그림 12>는 틀을 깬 컬렉션으로 외판심을 주제로 하여 죠스 가면을 쓴 모델이 등장하며 제 3의 성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환경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그림 13>은 구찌



〈그림 10〉  
Vetements 2019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1〉 Balenciaga  
2018 S/S MENS WEAR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2〉 Thom Browne  
2017 S/S MENS WEAR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3〉  
Gucci 2020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4〉 JW Anderson  
2017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5〉 Thom Browne  
2020 S/S MENS WEAR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6〉 Gucci  
2018 resort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7〉 Alexander  
Wang 2016 S/S  
(출처: <http://www.vogue.com>)

2020 S/S 컬렉션의 의상으로 화이트 점프슈트를 입은 모델 아이샤 탄 존스(Ayeshatan Jones)는 런웨이를 걸어 나오면서 카메라를 향해 ‘정신건강은 패션이 아니다(MENTAL HEALTH IS NOT FASHION)’이라는 문구를 적은 손바닥을 카메라를 향해 보이며 구속복(straightjacket)에 대해 침묵시위를 펼쳤다. 패션쇼 이후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정신질환자를 암시하는 구속복의 이미지를 패션에 차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한순간의 컨셉으로 이용하기에는 정신 질환은 고통스럽고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Ayeshatan Jones, 2019). 이에 대해 구찌 측은 패션과 자기표현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인간성과 유니폼에 대해 생각했고 사회와 이를 통제하는 사람들에 의해 강요된 유니폼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이라고 언급하

였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은 신체와 사이즈 등 다양성을 수용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평범함을 추구하지만 자연스러움이 절충된 놈코어(normcore) 디자인으로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에서 가족과 타자로 연계하였다. 이와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패션 윤리가 가장 지속가능한 패션의 화두로 부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 패션에서 젠더 뉴트럴 스타일 경향에서 나타난 특성은 확장된 보디 포지티브 퍼포먼스 스타일은 절충성,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되었다.

2) 상반된 문화 존중의 매시업스타일

매시업(Mashup)은 웹서비스 업체들이 제공



〈그림 18〉 JW Anderson 2016 F/W menswear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19〉 JW Anderson 2016 pre -fall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0〉 blindness 2017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1〉 burberry 2020 pre-fall  
(출처: <http://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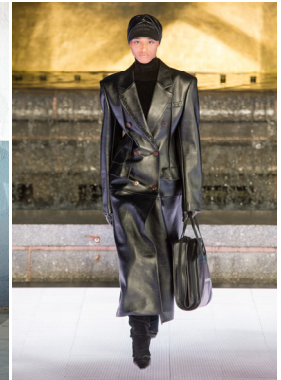
〈그림 22〉 Balenciaga 2019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3〉 Blindness 2018 S/S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4〉 Vetements 2020 F/W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 25〉 Alexander Wang 2020 S/S  
(출처: <http://www.vogue.com>)

하는 각종 콘텐츠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웹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써 음악에서는 2개 이상의 노래 중 하나는 음성, 다른 하나는 반주로만 구성하여 원래 있던 노래처럼 믹스하는 음악 수법을 뜻한다. 현대 패션에서는 여러 소재와 색상 각기 다른 문화양식, 각 다른 시대의 의상을 믹스 매치하여 나타내는 의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14〉는 제이더블유 앤더슨 2017 S/S 컬렉션 의상으로 매니쉬한 룩과 17C의 남성복에서 나타난 슬래시(slash)장식의 재킷과 쿨로트(culotte)를 연상시키는 팬츠를 60년대 볼드한 귀걸이로 시대에 따른 상위 문화와 하위문화를 매시업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는 톱 브라운의 2020년 S/S 컬렉션의 의상으로 18C의 만투아

(Mantue)를 연상하는 의상과 80년대의 스포츠의 디테일을 이용하여 18C의 화려함과 80대의 풍요로움과 실용성을 남성 모델을 통해 상반된 문화를 중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찌의 2018 리조트(resort) 의상인 〈그림 16〉은 하이엔드 의상과 스트리트 의상의 미스매치를 활용하여 상·하위 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진 레트로(retro)풍으로 동시대적인 서브 컬처로 보여지고 있다. 〈그림 17〉은 알렉산더 왕 2016년 S/S컬렉션의 의상으로 바이커 재킷과 데님 재킷을 조화로 아우터와 슬릿 디테일의 데님 스커트로 재질감의 차이를 주어 재미를 주었다. 다양성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하는 근본적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젠더 뉴트럴에서 상반된 문화 존중의 메시

업 스타일에서 나타난 특성은 절충성, 유희성,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되었다.

3) 공존하는 성(性)의 스트리트 스타일

현대 패션에서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은 모델의 더블 캐스팅과 복면과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으로 제3의 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믹스매치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시즌 개념을 무너뜨린 배경과 모델의 모습으로 사회적 규범의 틀에서 해방된 가치를 표출하고 있다. 제이더블유 앤더슨 2016 F/W 의상인 <그림 18>과 더불어 제이더블유 앤더슨 2016 pre-fall 의상인 <그림 19>는 유선형의 디자인에 피어싱과 지퍼로 현대적 요소를 활용한 60년대 풍 민소매 점프슈트의 동일한 디자인에 남·여 모델을 캐스팅하여 공존하는 동시대적 감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림 20>은 버버리 2020년 pre-fall 의상과 브라인니스의 2017년 S/S 컬렉션 의상인 <그림 21>은 복면과 후드 모자를 쓴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사회에서 규정한 남·여의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젠더 뉴트럴 스타일 경향에서 나타난 특성은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은 절충성,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되었다.

4)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

현대 패션에서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은 고정된 남녀의 성으로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전환되어 모호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2>는 발렌시아가 2019 S/S 컬렉션의 의상으로 80년대 레트로한 컨셉과 다양한 다양한 네온 컬러의 퓨처리스틱(futuristic)한 컨셉을 결합한 원피스를 남성모델이 입고 등장함으로써 더 이상 성 이분법이 의미 없다는 것을 위트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23>은 블라인드니스 2018년 S/S 컬렉션의 의상으로 의상 여성복에서 많이 쓰는 소재인 오간자, 레이스와 러플 장식을 활용하여 부드러운 곡선과 날렵한 직선을 자유자재로 조합해서 중성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베트명 2020년 F/W 컬렉션 의상인 <그림 24>는 우아한 퍼프소매의 블라우스와 롱스커트를 매치하여 남성 모델이 착용하여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일상적인 의상에 재해석이라는 베트명의 히스토리를 보여줌으로써 지속가능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5>는 알렉산더 왕 2020 S/S 컬렉션 의상으로 오버사이즈에 파워풀한 느낌의 볼드한 솔터와 잘록하게 잡은 허리라인의 코트로 가죽코트로 여성모델이 착용하여 성공지향적 여성을 표현한 도나카란(Donna Karan)의 80년대 스타일로 과거와 현재를 포용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 패션에서 젠더 뉴트럴 스타일 경향에서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의 특성은 절충성, 유희성,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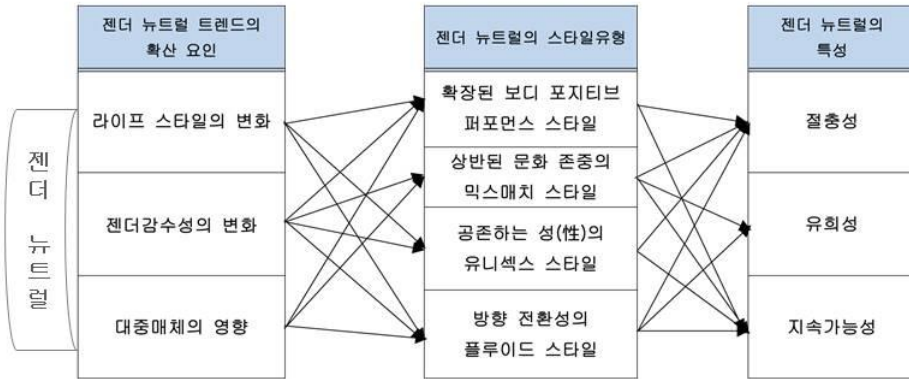
위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젠더 뉴트럴 트렌드 요인과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특징은 확장된 바디 포지티브 퍼포먼스 스타일, 상반된 문화 존중의 매시업 스타일, 상반된 문화 존중의 매시업 스타일,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 상반된 문화 존

<표 2> 패션디자이너별 젠더 뉴트럴 스타일의 특징 연도별 표현 양상

(n, %)

특성	확장된 바디 포지티브 퍼포먼스 스타일	상반된 문화 존중의 매시업 스타일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	합계
패션디자이너					
Alexander Wang	19(20.7)	33(35.9)	23(25.0)	17(18.5)	92(100)
Balenciaga	77(38.9)	38(19.2)	42(21.2)	41(20.7)	198(100)
Blindness	10(8.1)	8(6.5)	18(14.6)	87(70.7)	123(100)
Burberry	35(24.5)	59(41.3)	18(12.6)	31(21.7)	143(100)
GUCCI	96(27.6)	138(39.7)	8(2.3)	106(30.5)	348(100)
JW Anderson	1(0.1)	48(49.0)	18(18.4)	31(31.6)	98(100)
Thom Browne	94(28.7)	72(22.0)	2(0.6)	160(48.8)	328(100)
Vetements	26(16.3)	52(32.5)	56(35.0)	26(16.3)	160(100)
전체	359(24.0)	447(30.1)	185(12.4)	449(30.1)	1490(100)

〈표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의 스타일 유형 및 특성 도출



중의 매시업스타일,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패션 디자이너별로 나타난 특징 양상을 인터넷 보그 홈페이지(www.vogue.com)에서 2016년 S/S에서 2020 F/W의 컬렉션 의상까지 총 1,490장의 사진을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도출되었다. 젠더 뉴트럴 스타일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구찌는 상반된 문화 존중의 매시업스타일이 39.7%(138장)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이 20.5%(106장), 확장된 보디 포지티브 스타일이 27.6%(96장),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이 2.3%(8장)로 도출되었다. 이는 구찌 수석 디자이너인 알렉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의 영향으로 빈티지,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프린트와 패턴을 규칙이 없이 자유롭게 믹스하여 성과 시대의 구분이 없는 무규칙, 무시대, 무성을 추구하는 개인적 패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젠더 뉴트럴 스타일의 특징이 적게 나타난 알렉산더 왕은 상반된 문화 존중의 매시업스타일이 35.9%(33장)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이 25.0%(23장), 확장된 보디 포지티브 스타일이 20.7%(19장),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이 18.5%(17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톰 브라운은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이 10.7%(160장)으로 높게 나타났고, 확장된 보디 포지티브 스타일, 상반된 문화 존중의 매시업스타일,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렌시아가는 확장된 보디 포지티브 스타일이 38.9%(77장)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 상반된 문화 존중의 매시업스타일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멍은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이 35.0%(56장), 상반된 문화 존중의 매시업스타일이 32.5%(52장)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확장된 보디 포지티브 스타일과 방향 전환성의 플루이드 스타일이 16.3%(26장)으로 같게 보여졌다. 버버리는 상반된 문화 존중의 매시업스타일이 41.3%(59장)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확장된 보디 포지티브 스타일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이,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이더블유 앤더슨은 상반된 문화 존중의 매시업스타일이 49.0%(48장)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 확장된 보디 포지티브 스타일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고정관점에서 벗어나 사회문화 전반에서 자아정체성을 강조하고 다양성과 가치존중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든 면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모두가 동등한 환경을 지향하는 것으로 젠더 뉴트럴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특성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현상은 표현 수단의

하나로 끊임없이 현대인들의 감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이러한 경향 아래 젠더 뉴트럴 스타일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스타일의 특징은 확장된 보디 포지티브 퍼포먼스 스타일, 상반된 문화 존중의 메시업스타일,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로 나타났다. 뉴트럴 스타일 특징을 기반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스타일의 특성은 절충성, 유희성,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되었으며 <표 3>와 같이 정리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스타일 유형에 따른 특성은 첫째, 젠더 뉴트럴로 표현되는 절충성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차용하고, 공유하며 외적 평가 기준을 버리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보디 포지티브로써 표현되었다. 이처럼 Z세대에게 나타나는 자신의 다양한 자아뿐 아니라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집단적 개성을 절충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나타났다. 둘째, 젠더 뉴트럴로 보여지는 유희성은 상반된 문화에서 나타난 의복을 해체하여 방향 전환의 새로운 구성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유머러스하고 유티 있게 표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여의 의상을 확대한 실루엣으로 나타내거나 재미와 즐거움을 본질로 삼아 기존의 옷의 구조에서 벗어난 의외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 젠더 뉴트럴로 표현되는 지속가능성은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과정에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추구하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차용하고 공유하며 외적 평가 기준을 버리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보디 포지티브로써 나타나고 있다.

#### IV. 결론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교육의 균등화, 정신 집약적인 문화, 기계화 덕분에 남성

과 여성이 타고난 신체적 차이와 성별에 따른 할 일과 기능 사이의 경계는 더 모호해졌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소확행(小確幸: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하면서 자기만족, 자연스러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젠더 뉴트럴 스타일 유형과 특성에 대해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지만,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젠더 뉴트럴의 스타일에 대해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 중립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어 현대 패션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6년 S/S부터 2020년 F/W까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젠더 뉴트럴의 특성과 사회적 현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 기사를 토대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스타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통해 뉴트럴 개념과 젠더 뉴트럴 트렌드의 요인 분석으로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젠더 감수성의 변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별 변천에 따라 젠더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남성성을 추구한 여성들이 표면적으로 남녀 간의 동질성을 표현한 유니섹스와 신체적 성적 특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남과 여의 전유물인 명확한 복식을 서로 교류하여 착용한 앤드로지너스로 표출되었다. 1990년대 들어 남녀복식의 경계를 무너뜨린 중성적인 젠더리스 스타일이 나타났다. 이는 남성해방을 희망하여 패션으로 자유로움을 표현하였다. 이로써 크로스 섹슈얼과 매트루 섹슈얼로 보여졌다. 2000년 중반 이후에 성 규범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인간 존중이 가시화되면서 젠더 뉴트럴 스타일로 보이고 있었다.

젠더 뉴트럴 스타일의 특징은 확장된 보디 포지티브 퍼포먼스 스타일, 상반된 문화의 존중의 메시업스타일,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확장된 보디 포지티브 퍼포먼스 스타일은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

나 다양한 인종과 나이 때의 모델 또는 가면 등을 활용하여 제3의 성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둘째, 상반된 문화의 존중의 매시업스타일은 다양한 소재와 색상의 매치를 통해 각기 다른 양식과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에 따른 시간적 차이가 있는 의상을 믹스 매치하여 표출하고 있었다. 셋째, 공존하는 성의 스트리트 스타일은 남녀모델을 더블 캐스팅하거나 복면 또는 가면을 통해 규범적인 젠더의 틀을 허물며 제3의 성으로 공존하는 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개인의 취향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방향 전환의 플루이드 스타일은 성의 규범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전환되어 유티 있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젠더 뉴트럴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젠더 뉴트럴 특성은 절충성, 유희성,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절충성은 특성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타자와 다른 문화의 가치를 절충한 제3의 성으로 표현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문양 사용 또는 남성과 여성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유동적으로 착장하거나 디테일을 덧붙였다. 또한, 대조적인 문화를 믹스 매치, 상반된 소재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구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유희성은 다양한 인종, 노소와 일반인 가족 모델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젠더 규범성에서 벗어나 유머러스하고 유티 있게 표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여의 의상을 과장된 실루엣으로 나타내거나 재미와 즐거움을 본질로 삼아 기존의 옷의 구조에서 벗어난 의외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은 남녀의 관계없이 스타일과 사이즈를 제시하였다. 또한, 컬렉션에서 의상을 입는 모델들이 디자인 의상에 대한 생각을 어필하였고 이를 패션 디자이너들도 받아들이며 편견 없이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젠더 뉴트럴 스타일은 미적 형태를 넘어 사회적 이슈를 패션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와 소통하며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젠더 뉴트럴의 개념과 성별의 경계를 초월한 젠더 뉴트럴 스타일이 반영된 디자인 개발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가 패션산

업과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창의적인 젠더 뉴트럴 스타일에 관한 디자인 개발과 전개에 대한 기초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본 연구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미비한 실정에서 컬렉션 사진을 통해 분류하며 분석함에 있어 소재와 색상의 식별에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로 보다 많은 브랜드의 다양한 컬렉션 자료를 이용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젠더 뉴트럴 관련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36(36), 239-262.
- 김지연. (2015. 6. 24).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성희롱 개념 더 확대. *조선닷컴*. 자료검색일. 2019. 3. 2,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4/201506240029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4/2015062400295.html)
- 김지영. (2005). 캐시 에커와 포스트젠더의 공간들.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12(1) 105-131.
- 김지혜. (2016).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의 표현 특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해진. (2011).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크로스섹슈얼 스타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령. (200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젠더(Gender)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4), 324-330.
- 송무. (2003). *젠더를 말한다-페미니즘과 인문학의 만남*. 서울: 박이정.
- 안광숙. (2018). 현대 남성복에 컬렉션 표현된 젠더리스의 특성 연구. *인문사회* 21, 9(4), 1543-1556.
- 양은진, 이인성. (2009). 현대 여성의 콘트라섹슈얼 성향에 따른 패션 디자인 개발. *복식문화학회지*, 17(5), 733-745.
- 양현주. (2018. 3. 16). 성소수자 배려...일본 '젠더

- 리스 교복' 관심.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19. 1. 8, 자료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9&aid=0004116511>
- 이언영, 변미연, 이인성. (2016).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복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메트로 섹슈얼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2), 125-133.
- 이연희, 김영인. (2005). 현대 패션 룩(Fashion Look)에 표현된 성(性) 정체성. *복식문화학회지*, 13(5), 790-803.
- 이진경. (2011). *성(性) 이미지 변화에 따른 현대 남성 재킷의 디자인 특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규연. (2019). *성소수자의 복식을 통한 젠더정체성 표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아. (2015). *현대패션에 나타난 젠더플레이 룩의 시물라시옹 현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 임은혁, 서승희. (2018).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으로 본 남성복의 젠더리스 스타일. *한국 의류학회지*, 42(4), 626-638.
- 정하나. (2006). *뮤직비디오의 패션에 표현된 젠더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2011). *화장품 광고의 메이크업·헤어스타일에 표현된 젠더 이미지 유형 연구 -용(Jung)의 아니마·아니무스 원형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윤조. (2017. 9. 7). 옥상의 재발견-루프탑 카페& 펍. 매일신문. 자료검색일 2019. 8. 17, 자료출처 <http://mnews.imaail.com/NewestAll/2017090709440485359>
- Ayeshatanjones. (2019. 9. 23). Instagram. 자료검색일 2020. 3. 23, 자료출처 <https://www.instagram.com/p/B2wARwMAu1t/>
- Butler, J. (2008). *젠더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조현준 역). 파주: 문학동네. (원저 2006 출판).
- Gender-neutral pronouns. (2016). worldwidewords. 자료검색일 2019. 1. 18, 자료출처 <http://www.worldwidewords.org/articles/genpr.htm>
- Gender-neutral language. google. (2016). 자료검색일 2019. 1. 15, 자료출처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all&q=%2Fm%2F03nms4z>
- Gender-neutral pronouns. (2016). worldwidewords. 자료검색일 2019. 1. 18, 자료출처 <http://www.worldwidewords.org/articles/genpr.htm>
- Gender-neutral. (2016). OED. 자료검색일 2019. 1. 18, 자료출처 <https://public.oed.com/updates/new-words-list-march-2006/>
- World wide words. (1999. 9. 12). Gender-neutral pronouns. World Wide Words. 자료검색일 2019. 1. 9. 자료출처 <http://www.worldwidewords.org/articles/genpr.htm>
- 2018년 인기 검색어 보기 - 대한민국. Google. 자료검색일 2019. 1. 15, 자료출처 <https://trends.google.co.kr/trends/yis/2018/KR/>